

TV 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05:40 그때 그 사람(재) 50 부부극장 골짜기(재)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 손을 잡아>	00 KBC 뉴스지금 30 남도의 아침
8 00 굿모닝 A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나만의 당신)
9 00 신문이야기 돌격구소	30 KBS 뉴스	00 TV 소설 <순금의 땅>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10 팩트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 동화방간 자전거 55 튜트생활체조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11 20 정치이야기 是是非非	00 한국인의 밤상 55 바른말 고운말	15 사랑의 가족 45 수목 드라마 (김격시대)(재)	00 주말특별기획 <황금우주계>(재)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3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미니시리즈 <영광한 돌싱녀>(재)	00 SBS12뉴스 30 건강클리닉
1 40 뉴스 추적자	00 공사청립 41주년 특선안고르 (부국의 조건 3부) 50 고향극장		30 피우자 만들레	
2 50 직언직실	40 행복발전소 제로 프로젝트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35 리얼스토리 눈(재)	00 SBS 뉴스 10 문화가중계
3	00 뉴스 토크	00 후토스 읽어버린 숲(재) 25 두리둥실 용계공황 55 TV 유치원 공대공	00 MBC 경제 뉴스 10 리아스맨 40 할로키트 숲속마을 붕붕붕	10 SBS 이슈인 사이트
4 00 박종진의 뉴스쇼 캐도난마 1~2부	00 KBS 네트워크 특선 (비밀반) 55 튜트 생활체조(재)	25 코파 반장의 동화 수사대 55 위기탈출 넘버원(재)	30 똑? 똑! 키즈스쿨	00 꿈의 보석 프리즘스톤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도그래피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남새와 생활 35 내 마음의 크레파스
6 00 채널 A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24 30 생생 정보통	20 불만제로 UP	05 전곡 TOP10 가요쇼
7 20 웰컴 투 시월드(재)	00 KBS 뉴스7 30 필통	50 일일드라마 <전상 여자>	15 일일연속극 <빛나는 로맨스>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띠띠부띠 20 일일드라마 (걸키운 말하)
8 30 관찰카메라 24시간	25 일일연속극 (사랑의 노래를 타고)	3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5 비타민	55 MBC 특별기획 <제왕의 딸, 수백향>	00 SBS8 뉴스 35 KBC8 뉴스 55 한밤의 TV연예
9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생방송 집중토론 50 리얼체험 세상을 품다	00 수목드라마 (김격시대)	00 수목미니시리즈 <영광한 돌싱녀>	00 드라마스페셜 (소리대이스)
11 00 이영돈·신동엽 토크쇼(재)	30 KBS 뉴스타임	10 맘마미아	15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15 짝
12 10 모닥드라마 <싸인>(재) ①:20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재)	3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①:10 K소리 악동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세상의 모든 디큐 ①:35 다큐멘터리 3일(재)	35 MBC 뉴스 24	35 나이트 라인

EBS

05:00 World News Review	09:40 부모 <육아를 부탁해!>	14:45 곤	19:30 EBS 뉴스
05:40 영미없이 살아보기(재)	10:10 하이힐-하루 이 시간 힐링	15:00 지구를 지켜라	19:50 다문화 고부열전(재)
06:10 세계의 눈 <저녁>(재)	10:50 최고의 요리 비결	15:15 미사외곡	20:40 다큐 오늘
07:00 권재	11:20 세계대미기행	16:30 모여라 댕댕명 스페셜	20:50 세계대미기행
07:15 우영랑랑 아이쿠(재)	(일본)(재)	16:50 댕댕명 유치원(재)	<원난 소수민족기행>
07:30 꼬마버스 타요(재)	12:00 EBS 정오 뉴스	16:20 우영랑랑 아이쿠	21:30 한국기행
07:45 로보카 폴리(재)	12:10 EBS 초대석	16:30 책읽기 요정 모모	<하동포구 80리>
08:00 댕댕명 유치원	13:05 지식체널e	16:45 춤 추는 곰, 공작(재)	21:50 EBS 다크프라임
08:20 책과 펄(재)	13:10 사이인	17:00 방귀대장 뽕뽕이(재)	<교육혁명, 15세에 주목하라!>
08:35 방귀대장 뽕뽕이	13:20 꿀꿀! 페퍼는 즐거워	17:15 꼬마버스 타요	22:45 극한직업 <금고공장>
08:50 춤 추는 곰, 공작	13:30 고양이 피피	17:30 로보카 폴리	23:35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09:05 책읽기 요정 모모(재)	13:45 반짝반짝 발광 클럽	17:45 두다디큐	24:05 지식체널(재)
09:20 미술탐험대	14:00 메탈도사	18:00 생방송 특! 특! 보니하니	24:10 한국 영화 특선
09:35 이기 고릴라 동동	14:30 코코로2	19:00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재)	<국경의 남쪽>(재)

EBS플러스1

00:00 올림포스 <국어 I>	12:10 5분 과학·생명과학 I <국어 I B형>
00:50 " <국어 II>	12:15 수능 특강 <수학 I B형>
01:40 " <영어독해의 기본 II>	13:05 " <미적분과 통계 기본>
02:30 " <수학 II>	14:00 " <국어 B형>
03:20 뉴 탐스런 <한국지리>	14:50 " <영어 A형>
04:10 " <과학>	15:40 " <영어 B형>
05:00 " <한국사(하)>(재)	16:30 " <한국지리>
05:50 2013 포스 <수학 II>	17:20 " <사회문화>
06:40 압축탐스런 <생명과학 I>	18:10 " <경제>
07:30 2014 포스 <문학 II>	19:00 " <윤리와 사상>
08:20 올림포스 <영어독해 기본 II>(재)	19:50 5분 과학·생명과학 I(재)
09:10 " <수학 II>(재)	20:00 수능특강 <국어 B형>(재)
10:00 뉴 탐스런 <과학>(재)	21:00 " <영어 A형>(재)
10:50 2013 포스 <수학 II>(재)	22:00 " <영어 B형>(재)
11:40 박멸의 이유를 만드는 경제	23:00 수능특강 <세계사>(재)

EBS플러스2

07:00 2014 공민중개사 시현대비 강좌	15:20 민중왕 <사회 ③-1>
07:30 친정환 수학 익힘풀이(6-1)	15:50 " <사회 ④-1>
08:00 9급 공무원 시험 대비 강좌	16:20 " <사회 ⑤-1>
08:30 의학·치의학·약학 적성시험 대비강좌	16:50 " <사회 ⑥-1>
09:00 출가문 수학 EBS MATH	17:20 민중왕 평가문제풀이 <전과목 ⑥-1>
09:10 TV 중학 <국어 ①②>	17:50 스물셋(재)
09:50 " <수학 ①(하)>	18:00 TV 중학 <영어 ③-1>
10:30 " <도덕 ①>	18:40 " <수학 ③-1>
11:10 " <국어 ②④>	19:20 등업신공 <사회 ④-1>
11:50 " <수학 ②(하)>	20:00 중학개념 끝장내기 <국어>
12:30 등업신공 <사회 ①>	20:40 " <영어>
13:10 " <역사 ①>	21:20 " <과학>
13:50 " <역사 ②>	22:00 " <수학>
14:30 " <사회 ②>(재)	22:40 TV 중학 <수학 ①(하)>
15:10 스물셋	23:20 중학포스 영문법3

‘꽃누나’ 김희애 21년만에 스크린 나들이

“제2의 전성기? 늘 마지막 촬영처럼 최선”

영화 ‘우아한 거짓말’ 주연

“아역들 연기보고 평평 울었다”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누나’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드라마에선 20대 청춘과 사랑에 빠지기도 한다. 오랜만에 스크린에 나들이했다. 이름 되면 아마 제2의 전성기 가려 해도 틀린 말을 아닐 거다. 배우 김희애(47·사진) 얘기다.

“누군가 제8의 전성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운동도 하고 피부관리도 받지만 제 얼굴 보면 세월이 어디 비껴가겠어요? 늘 마지막 촬영이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촬영에 임해요.”

영화 ‘우아한 거짓말’로 스크린에 복귀한 김희애는 4일 서울 중구 태평로의 한 호텔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영화로 그의 모습을 보는 건 문성근과 호흡을 맞췄던 ‘101번째 프로포즈’(1993) 이후 21년 만이다.

너무 오랜만이어서 그랬을까? 김희애는 영화를 보고 나서 평평 울었다고 한다. “눈물이 별로 없는” 그녀로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영화 찍으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연기해 낼지 걱정했는데, 막상 결과물을 보니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연기는 세계적 수준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어요. 보통 제 연기를 보느라 영화에 잘 몰입하지 못하는데, 아이들의 연기를 보면서 갑자기 무슨 후폭풍 같은 감정이 일어났어요.”

“완득이”의 이한 감독과 김려령 작가가 다시 한 번 손 잡고 만든 ‘우아한 거짓말’(13일 개봉)은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던 한 소녀가 자살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유혹과 소녀 주변의 이야기가 미스터리 형식으로 진행된다. 영화에서 자살한 소녀 천지(김향기)의 엄마 현숙 역을 맡은 김희애는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았다”며 “검도 나고, 피하고 싶은 이야기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끝까지 잊게 하는 힘이(원작 소설에) 있었다”고 말했다.

“안득이”도 그랬어요. 소개는 어두웠지만



영화는 어둡지 않았죠. 실제 삶에서 설사 어두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성숙해져야 하는 거잖아요. 영화가 어두운 부분을 확대하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잘 풀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에서 김희애는 “쿨한” 엄마로 나온다. 그러나 실제 삶은 그런 “쿨한”과는 거리가 있다. “공부 안 하고 컴퓨터하고 있으면 불안해지고, 자꾸 엄마로서 할 일을 못 한다는 죄책감”이 엄습하는 그런 평범한 엄마다.

오랜만에 영화 촬영하니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다. 속속속결을 생명으로 하는 드라마와는 달리 영화는 “너무 공을 들여서 찍어 심리작 압박이 더 컸다”고 한다.

그는 “여유 있게 촬영을 할 수 있으니, 연기하는 데 드라마보다는 섬세함이 더 필요했다”고 말했다. 영화뿐 아니다. 김희애의 활동 영역은 예능과 드라마를 넘나든다. ‘꽃보다 누나’에 참여하게 된 건 ‘꽃보다 할배’를 보고 ‘산배들이 예능의 전면에 나서는 게 반갑고 부러워’서다.

“드라마와 영화감독이 점점 좁어지고 있어요. 감독이 젊으니 스타플루도 젊어지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 나이 든 분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한국 영화와 드라마는 그런 점에서 기적적이예요. 어른들이 나올 수 있으면 얼마든지 더 다양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연말뉴스

가수 ‘비’ 첫 중국영화 출연

영화 ‘홍안로수’ 남 주인공 발탁

대기업 후계자이자 청년 화가역



배우 겸 가수 비(본명 정지훈·32·사진)가 데뷔 이래 처음으로 중국 영화에 출연한다.

4일 소속사 큐브D에 따르면 비는 중국 7대 감독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가우시시(高希希)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홍안로수’(가제)의 남자 주인공 ‘쉬청원’ 역에 캐스팅됐다.

비는 이 영화에서 동남아 최대 기업의 유

일한 남성 후계자이자 열정과 예술성이 넘치는 청년 화가 쉬청원으로 분해

진실한 사랑의 위대함을 그려낼 예정이다. 상대 여배우는 국내에도 잘 알려진 중국 인기 배우 류이페이(劉亦菲)가 낙점됐다. 비는 류이페이와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접근하지만 겹잡을

수 없는 사랑에 빠지는 러브 스토리를 펼친다. 소속사는 “비가 그간 할리우드에서 ‘닌자 어쌔신’을 비롯해 최근 촬영한 ‘더 프린스’에 이르기까지 주로 강인하고 웅맹한 남성미를 보여줬다면 이번엔 연기 변신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홍안로수” 제작사 관계자는 “비의 스타상은 물론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역할로서 캐릭터의 집중도가 매우 높아야 한다는 점, 쉬청원이 스마트하면서도 예술에 취해 있는 캐릭터란 점을 고려해 캐스팅했다”고 설명했다.

비는 이날 중순 중국 상하이에서 첫 촬영을 한다. —연말뉴스

TV 하이라이트

찰떡궁합 제동택과 진교택 이야기



한국기행-하동포구 80리(EBS·밤 9시30분)=하동의 간이역 양반역은 자그마한 모습이 정겨운 무인역이다. 양반역 옆에 자리한 양보마을에는 찰떡궁합 짝꿍, 제동택과 진교택이 산다. 시집 온 그날부터 그들은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제 동네에서 시집 왔다고 해서 제동택, 하동 진교에서 시집 왔다고 해서 진교택. 이렇게 이웃에 살며 자매처럼 친구처럼 놀았다. 제동택은 작년에 짝을 얻었다. 겨우 내 쓰기 위해 영감님이 패다 놓은 장작은 그 빈자리를 느끼게 하지만 자식처럼 기르는 흑염소 한 마리와 곁을 지켜주는 진교택이 있어 외롭지 않다. 제동택과 진교택은 농사지는 깨 싸고 양반역에서 하동장으로 가는 기차를 탄다. 새벽밥을 먹고 나가서 감감해져서야 걸어서 수 있었던 하동장 가는 길은 이제는 양반역에서 기차가 대신해 준다.

폭력에 시달리고 버림받는 아이들



대한민국 행복발전소(KBS1·오후 7시30분)=2013년 가정폭력 발생건수 1만6785건. 그런데 신고율은 단 1.8%에 불과하다. 개인의 가정사로운 처방보다 보니 피해자는 폭력의 위험에서 헤어나기가 쉽지 않다. 수년 간 지속된 가정폭력으로 인해 존속살해사건까지 야기되는 암울한 현실에 ‘간간한 시선’팀이 긴급 점검에 나섰다. 지구대에 MC 유상무를 급파, 가정폭력 발생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왔다. 또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주변의 도움으로 평온을 찾아가고 있는 제보자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책들을 간간하게 찾아왔다. 제로프로젝트에서는 버려지는 아이들을 만났다. 매년 8000여 명의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다. 이중 새로운 부모를 만나는 아이는 단 2% 뿐이다.

천하박색 아귀의 숨겨진 반전 매력



관찰카메라 24시간(채널A·오후 8시30분)=말리 남쪽 바다에서부터 시작되는 봄의 기운. 때마침 2~4월 산란기를 앞둔 바로 이맘때 그 맛의 절정을 이룬다는 뜻이니 생선, 아귀. 못생긴 것으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운 천하의 박색(薄色) 아귀에도 숨겨진 반전 매력이 있으니, 긴긴 겨울의 터널을 지나 잃어 버린 입맛을 되찾아 오는 데는 이만한 별미가 없다. 소문난 ‘제철 아귀’의 참맛을 찾아내기 위해 아귀 요리의 본고장인 마산 오통동에 관찰카메라가 됐다. 경남 창원외 마산 지역은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 ‘뽕생겨서’ 버림받은 아귀들이 초가자붕 위에 말 그대로 널려 있었다. 말라 비틀어진 아귀에서 뜻밖의 맛을 찾아낸 오통동 흑부리 할매의 이야기, 바로 그 절실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곳이 바로 마산 오통동의 아귀집 거리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5일(음 2월 5일 乙亥)

子 36년생 급박하게 돌아갈 것이니 민첩해야겠다. 48년생 역발상이 빛날 수다. 60년생 다방면으로 두루 살피는 것이 현명하다. 72년생 운로가 성사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84년생 함께하는 자리에서 실행하라. 행운의 숫자 : 96, 70

丑 37년생 엄연한 사실임을 알자. 49년생 크게 감동받을 만한 일이 있다. 61년생 난감해지리라. 73년생 불평함을 참고 있노라면 머지않아 회복세로 돌아서리라. 85년생 밤식하면 우환을 먼저 못하리라. 행운의 숫자 : 71, 13

寅 38년생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일이 발생해리라. 50년생 부딪치면 서로 손해이니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상책이다. 62년생 측면에서의 역할을 잘 해주어야 한다. 74년생 잘 새겨두어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8, 30

卯 39년생 결가지를 무시하고 주된 것에 몰입하라. 51년생 기본에 충실하다 보면 문제될 것이 없다. 63년생 세월에 묻혀 버릴 뻔한 비밀을 듣게 되리라. 75년생 평생에 영원히 잊지 못할 일이 발생해리라. 행운의 숫자 : 56, 97

辰 40년생 결정적인 행국이 조성되는 마당이다. 52년생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이루어리라. 64년생 별것 없으니 크게 부담 갖지 않아도 되겠다. 76년생 갈급하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고 간접적인 것만 눈에 띈다. 행운의 숫자 : 10, 04

巳 41년생 어렵사리 위기를 모면하는 모습이 비친다. 53년생 상당히 비중 있게 전개될 것이나. 65년생 큰 노력 없이도 수월하게 이익을 얻겠다. 77년생 여러 가지 행운이 보따리 채울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62, 77

午 42년생 정확히 일치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놀랄 것이다. 54년생 사람이 깊은 이는 미움 또한 깊은 법이다. 66년생 잘 살펴보아야 대안이 마련 될 것이다. 78년생 윤곽이 잡히고 체계가 서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24, 84

未 43년생 지나치다면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다. 55년생 현실적이고 가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무방하다. 67년생 수시로 변할 수 있는 임시적 상황이니라. 79년생 적극적인 공격보다 더 단박한 방어책은 없다. 행운의 숫자 : 06, 44

申 44년생 지속적이라면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거두겠다. 56년생 무주공산을 견고하고 있는 모습이다. 68년생 이치에 어긋남이 없어야 오래 갈 것이다. 80년생 예리하게 관찰하고 냉철하게 분석해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27, 25

酉 45년생 심한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대국이다. 57년생 이웃과의 관계가 긴요하다. 69년생 티끌 모아 태산이 되는 법이니 미진도 소홀히 하지 말라. 81년생 활로를 열어 줄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된다. 행운의 숫자 : 53, 19

戌 46년생 유기적인 관계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58년생 현재지반이 일어나지 않는 한 계획대로 진행되리라. 70년생 협조자는 보이나 진행은 지연된다. 82년생 신념은 가지되 중용의 도는 잃지 말라. 행운의 숫자 : 17, 65

亥 47년생 신통치 않으므로 빨리 방향 전환을 해야 옳다. 59년생 안분지족 할 줄 아는 참된 지혜가 요구된다. 71년생 관계를 개선키고 국면 타개에 매진해야겠다. 83년생 광급한 신변 정리가 절실한 때이다. 행운의 숫자 : 35, 69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행영” ☎010-9790-8237